

백신접종 6개월...세계인구 11% 접종

코로나19 확산세 다소 진정 미국·유럽 등 일상회복 속도 백신 빈부격차 우려는 여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전염병에 백신으로 반격한 지 7일로 182일째 됐다. 세계인구 10%가 백신을 맞았고 팬데믹 종식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부터 나왔던 '백신 빈부격차' 우려는 여전히 걱정거리다.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대규모 백신접종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통 지난해 12월 8일을 꼽는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영국 코번트리 한 대학병원에서 당시 아흔살이었던 마거릿 키넨 할머니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대장장'이 시작됐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까지 세계인구(2019년 세계은행 기준 76억7365만여명)의 11%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다고 추산된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최소 1회차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8억9470만명이다. 이제까지 접종이 이뤄진 백신량은 21억2000억회분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까지 16억3800만6000여회분이 접종됐다고 밝혔다.

백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WHO 통계를 보면 올해 일일 신규 확진자는 4월 중순 절정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까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45만534명으로 올해 가장 많았던 4월 23일 89만5476명의 절반 수준이다. 신규 사망자도 5일 1만720명으로 올해 최고였던 1월 28일(1만7023명)에 견주 37% 적었다.

백신의 효과는 접종률이 앞서는 국가들의 일상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전 인구 60%가량이 백신

을 맞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이스라엘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백신을 못 맞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를 폐교하는 오는 15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인구 약 42%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번이라도 맞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인구 절반이 접종자인 미국도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은 5일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2780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기도 했던 1월 초에 견주 매우 감소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13일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하며 일상회복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 관련 사망자가 0명을 기록한 영국도 이달 21일 방역을 위한 봉쇄완전 해제를 목표로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도 방역을 봉쇄를 완화했거나 완화해가는 상황이다./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코트키에서 충돌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열차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날 남부에서 북부로 가던 급행열차가 탈선한 데 이어 마주 오던 급행열차가 이를 들이받아 30명 이상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남부 열차 충돌 30명 이상 사망

"15~20명 아직 갇혀있어"

파키스탄 남부에서 7일(현지시간) 열차 두 대가 충돌하면서 승객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돈(DAW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남부 신드주 코트키 지구 다르키시 인근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라트 급행 열차가 먼저 탈선했고 이후 시에드 급행 열차가 이를 들이받았다.

밀라트 급행 열차는 남부 카라치에서 북부 사르 고다로 향하는 중이었고, 시에드 급행 열차는 북부 라호르에서 카라치로 달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과정이나 탈선 원인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열차에는 결혼식 하객 등 약 1100명이 탄 것을 알려졌다.

지역 당국 고위 관리인 우스만 압둘라에 등에

"열차 13~14량이 탈선했고 6~8량은 완전히 부서졌다"며 "이 사고로 30명 이상이 숨졌고 약 5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이 수습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밀라트 급행 열차 잔해 내에 15~20명이 아직 갇힌 상태라며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조 열차도 인근 도시에서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대와 경찰 그리고 주민 등이 사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지원 캠프도 현장에 설치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실한 신호 체계 등으로 인해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2019년 10월에는 카라치에서 라왈핀디로 향하던 열차에서 불이나 75명 이상이 숨졌고, 2016년에는 카라치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2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선거사기로 졌다"...트럼프 전철 밟는 네타냐후

이스라엘판 의회폭동 우려

실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거사기'를 주장하며 '절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비슷한 유행 사태를 포함해 야당 지도자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나다브 아르가만 국장은 전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소셜미디어상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담화는 특정 그룹과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앗는 것을 포함해 불법적 폭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중도와 좌·우, 아랍계까지 포함한 '무지개 연정' 구성을 '세기의 선거 사기'로 맹비난해 온 네타냐후 총리는 선동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비판과 폭력 선동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만이

존재한다"며 "비판이 우파에서 온다면 선동이고, 좌파에서 온다면 표현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모든 폭력선동을 싫어한다"면서도 "우리를 향한 선동 역시 분노스럽다"며 의회에서 사적인 연정 구성을 막아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네타냐후 연정에는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17석)와 청백당(8석), 중도 우파 성향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7석), 좌파 성향의 노동당(7석)이 참여했다. 또, 우파 성향의 '뉴 호프'(6석),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메레츠(6석), 극우 성향의 야미나(7석), 아랍계 정당 라람(4석)도 합류했다. 이들 8개 정당의 의석은 62석이지만, 야미나 의원 7명 가운데 6명만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연정 지지 의원 수는 61명이다. 1명이라도 이탈자가 나오면 반네타냐후 연정은 성사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전철을 밟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중동평화회담을 이끈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가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된 1995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합뉴스

흔들리는 홍콩

다국적 기업·인력들 속속 이탈 사무실 공실률 15년만에 최고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있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 등으로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홍콩에 있던 다국적 기업과 고급 인력들이 경쟁도시인 싱가포르와 상하이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홍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25명 가운데 42%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을 이유로 이주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미 2019년 이후 홍콩에 두고 있던 지역본부나 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수십 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사무실 공실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팀버랜드와 노스페이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VF 코프는 지난 1월 25년째 이어온 900명 규모의 홍콩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로레알 등은 홍콩사무실 직원 일부를 싱가포르 등지로 이전 배치했다. 네이버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국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바꿨다. /연합뉴스



중국 역대 최대 1078만명 대입능력시험 중국 대학입학능력시험 '가오카오'(高考) 첫날인 7일 베이징에서 한 학부모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딸의 마스크를 고쳐 씌워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가오카오는 역대 최대인 1078만 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일 스가 총리 지지율 37%...또 최저치 경신

도쿄올림픽 개최 50%·취소48%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놓고는 개막이 다가오면서 개최 불가피론 쪽으로 기운 일본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070명(유효 답변자)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37%로, 작년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의 지난달 조사 결과(43%)에

서 6%포인트나 빠진 것이다.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작년 9월 조사 때(74%)와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이번 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0%를 기록해 현 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조사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여는 것을 놓고는 무관중(26%)이나 관중수 제한(24%) 조건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소해야 한다' 의견은 48%로 조사돼 조건부 개최에 찬성하는 여론이 근소한 차로 앞섰다. 취소를 주장하는 응답자 비율은 한 달 전 조사 때(59%)와 비교해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연합뉴스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 경기/수도권 지역
-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 투자금 - 3억 이상
-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